

여친 행세 해주면 2억 제공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제2903호 www.metroseoul.co.kr



가인-주지훈 '위험한 사랑'

박대통령, 현 부총리 공개경고

NEWS p/02

창동·상계동 신경제 중심지로

NEWS p/03



다운점퍼 '가격만' 천차만별 p/08


漢 城 旬 報
CJ문화재단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creative minds 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순종 가출, 왕실 발칵 뒤집혀…
사라진 순종을 찾아라!
漢城旬報
라스트 로얄 패밀리
14.1.11~2.23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출연 박선우 김태한 임진아 구원영 지혜근 조정환 이충주 인진우 강은애
프로듀서 오훈식 / 작,작사 전미현 / 작곡 조미연 / 연출 정태영 / 음악 박지훈 / 안무 정도영
예매 | 충무아트홀 인터파크 티켓 AUCTION 티켓 YES24.COM 공연 제작 | R&D 주관 | CLIP service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뮤지컬협회 충무아트홀 CJ 문화재단 문의전화 | 1577-3363(클립서비스)



이민호·박신혜 "열애라뇨"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제2903호 www.metroseoul.co.kr



살아난 '탱크'…1타차 2위

'아르헨발 환란' 호들갑 떨지마!

아르헨티나에서 촉발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점차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신흥국가들의 시장 불안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가 아시아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도 일정 부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흥국 확산 우려에 코스피 장중 한때 1900선 붕괴
미 추가 테이퍼링에 달렸지만 한국은 큰 영향 없어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로 이날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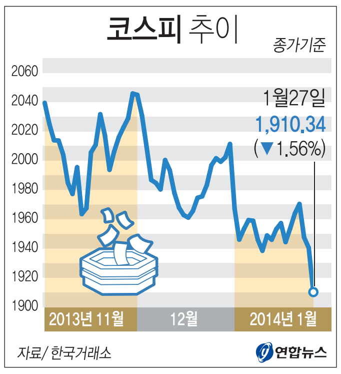
코스피지수는 개장 직후 1900선 아래로 급락하더니 1899.76까지 뚝 떨어졌다.

19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8월 28일(1884.52)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우려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하락폭을 줄여나간 코스피는 결국 전 거래일보다 1.56% 내린 1910.34로 마감했다. 상승세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이후 상승폭을 키워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달러당 1087.7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1083.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발 금융 불안과 관련해 "국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흥국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지난 24일 2% 안팎으로 급락했다"면서 "한국도 이런 시장 흐름을 일부 반영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전했다.

HMC투자증권 이영원 연구원도 "신흥국 불안은 펀더멘털이 취약하고 정정 불안이 부각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 절하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외환 보유고의



급감이, 터키는 정치적 혼란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이지형 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아르헨티나 통화 불안을 신흥국 외화위기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따라 신흥국 환율이 한두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의 연장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 환율 상승을 신흥국 전반의 외환위기로까지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기가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수출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 "수출엔 악영향 미칠 수도"

유진투자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58%이고, 현재 문제국으로 꼽은 신흥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0%를 넘는다"며 "현재 선진국 경기 회복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통화·금융 불안이 신흥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정부 '대내외 금융 상황 모니터링'

한편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신흥국 시장 불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꼼꼼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시장이 불안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맥빠진 딜러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 급락으로 불붙은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국내 증시를 강타했다. 이날 코스피는 한때 장중 1900선이 무너지면서 1899.76까지 내려갔으나 전날 거래일보다 30.22포인트(1.56%) 내린 1910.34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30곳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초과

"집중관리 통해 지금은 개선"

서울 지하철역 30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라돈 농도 검사에서 기준치인 4피코큐리(pCi)를 한 번 이상 초과한 역사는 2호선 4곳(을지로4가·아현·이화여대·잠실), 3호선 5곳(교대·충무로·종로3가·안국·경복궁), 4호선 4곳(남태령·삼각지·회현·충무로), 5호선 8곳(충정로·서대문·광화문·종로3가·을지로4가·동대문운동장·청구·군자), 6호선 3곳(역촌·고려대·월곡), 7호선 5곳(마들·노원·중계·하계·공릉) 등 총 30곳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역사는 대부분 깊은 지하에 건설된 곳이거나 화강암 지반을 지나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곳으로 조사됐다.

30곳 중 28곳은 서울시가 2012년 10월 라돈 농도 저감대책 발표 당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한 37곳에 포함됐던 역사다.

2호선 3곳, 3호선 2곳, 4호선 4곳, 5호선 5곳, 6호선 9곳, 7호선 1곳 등 24곳은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넘은 역사 3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배수로·맨홀 등을 밀폐하는 한편 라돈 전용 송풍기도 설치해 지금은 30곳 모두 라돈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어린이집 120곳에 대해서도 라돈 농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3곳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없다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책임있는 방송



기자 수첩

탁 진 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SBS '오! 마이 베이비'에 등장하는 이은의 시댁인 아일랜드 리조트가 부실 운영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회장님 너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일랜드 리조트 측의 공사대금 의혹을 인테리어 업자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것이다. 리조트 측이 부도를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골프장 이용 선불카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전달해놓고서 방송을 통해 본 회장 가족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논란이 일자 리조트 측은 다음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인테리어 업자가 리조트 측과 합의한 후 MBC에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MBC가 이를 방송했고 정확한 자료 조사 없이 왜곡된 자료를 내보냈다"고 반박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리조트 회장 가족의 도덕성을 질타하며 이은의 하차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이은과 회장 가족이 리조트 빌라 분양 홍보를 이유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하차나 결방과 관련해 SBS 측은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인테리어 업자가 말을 바꾸고 아일랜드 리조트와 MBC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조트 측도 '오! 마이 베이비'도 곱게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출연시킨 SBS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빠른 해명이 필요하다.

황찬현 "카드사태 감사 적극 검토"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월 초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또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도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대규모로 감사를 하고자 한다"며 "공기업이 많다 보니 연인원 200명 정도를 투입해 상반기에 2월과 4월, 각 두 달씩 2차례로 나눠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국민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사업 등에 대해 감사 전문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 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의원회관 택배상자 '산더미' 설날을 나흘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각 의원실에 배달되는 택배들이 쌓여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안철수 신당 가칭 '새정치신당'으로 결정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7일 신당의 명칭을 '새정치신당'(가칭)으로 결정했다. 새정추 측은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정해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라며 "창당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에 박대출·함진규 임명

● 새누리당이 27일 당 대변인에 박대출 의원과 함진규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대변인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서울신문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조선 의원으로 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함 신임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박 대통령 "공직자,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 하지 마라…재발땐 반드시 책임 묻겠다"

실언 현오석 '공개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유출 사태로 나빠진 여론에 현 부총리의 실언이 더해지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 때문에 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발생 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팀 경질'에 대한 여야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재발 시'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당분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설레는 이산가족 27일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접수처에서 자신의 신청서 접수를 확인하는 전낙린(78·평남 대동군)할아버지는 이번에 성사되도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추석 당시 진행하려다 무산된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산상봉 내달 17~22일 금강산서"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정부가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측이 호응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상봉일을 2월 중순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금강산 현지에서 상봉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동절기에 행사를 치르는 것인 만큼 난방 문제가 없는 금강산, 외금강 호텔이 숙소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장병 급식비 6.5% 인상 제철과일 공급 늘리기로

국방부는 27일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가 지난해 6432원에서 올해 6848원으로 6.5% 인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공식품인 주스 대신 신선한 제철과일 급식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하루 증식비도 지난해 하루 500원에서 올해 1000원으로 올라 빵과 에너지바 등의 보급이 확대된다.



올해 첫 신검 27일 오전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올해 첫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000여 명이다. /연합뉴스

이동중지명령 뚫은 AI

충북서도 첫 감염의심신고…공무원 3780명 동원 시화호 등 항공방제

방역당국이 충남북·경기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하고 일제소독을 진행하는 동안 충북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충남북·경기·대전·세종 등 5개 시·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소독차량 144대, 광역 방제기 44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축산시설 1만5000여 곳과 축산차량 2만5000여 대를 소독했다. 또 3780여 명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가금류 농가 소독에 투입했다.

특히 AI에 감염된 가창오리 폐사체가 발견된 충남 당진 삽교호 일대와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된



예방접종 먼저… 27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31사단 96연대 군장병 150여 명이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 /뉴시스

경기 안산 시화호 주변의 경우 대형 헬기 2대를 동원, 항공 방제했다.

그러나 충북 진천의 한 씨오리 농가에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충북에서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북, 충남, 경기 등에 이어 충북도 AI 감염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AI 발생 지역의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2047명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증세가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이번 AI의 발병원으로 추정되는 가창오리 수컷 한 마리를 포획해 위성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결과 동림저수지에서 충남 서천 금강 하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H5N8형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가는 총 18곳이며, 오염 여부를 조사 중인 곳은 19곳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차이나타운' 같은 명동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27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 중국어로 쓴 새해 인사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내 면세점과 여행업계는 춘절 연휴 기간인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필로폰 맞고 부산~청와대 '환각질주'

"박 대통령 만나러 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차량을 몰고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안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검문소까지 차량을 몰고 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잘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필로폰을 입수한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누가 더 많이 컸나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의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방학 동안 자란 키를 비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연휴 쓰레기 배출금지 내달 3일 이후부터 가능

설 연휴인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쓰레기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환경미화원이 휴무에 들어가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중단되고 다음달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이전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해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연휴에 거리 쓰레기 등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적재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함께 총 63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해 쓰레기 민원과 투기 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창동·상계동에 일자리 8만개

서울시 '동북4구' 집중개발

서울의 열악한 변두리라는 인식이 강한 동북 4구(성북·강북·도봉·노원)가 '행복4구'로 탈바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4개 구청장들은 27일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고 320만 주민을 아우르는 수도권 동북부 생활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코엑스 2배 크기의 대규모 가용 부지가 있는 창동·상계지역을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한다.

동북 4구는 의정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 주요 도시와 도심을 연계하는 관문으로, 전국 최다 대학과 인적·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창업 준비부터 기업 성장 단계까지 연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심 업무, 상업, 컨벤션, 호텔 등 시설을 도입하고 수서~의정부까지 KTX 노선 연장과 동서 간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시비 약 4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이전한다.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직원자녀 초청 정보화 교육

서울지방우정청은 24일 포스트타워 6층 정보화지원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 자녀 33명이 참가해 '최신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멋진 방학숙제 하기'라는 주제로 파워포인트 편집 기술과 출판 방법을 배웠다.

관악구 북스타트 운동 추진

서울시 관악구는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육아지원운동 '2014년 북스타트'를 추진한다.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북스타트데이'로 만 24개월 이하·36개월 이하·60개월 이하의 연령에 맞게 구성된 그림책을 배부한다. 또한 영유아 발달의 이해, 책 읽기 지도, 그림책 고르기 등 부모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천구 사랑의 교복 나눔장터

서울시 금천구는 졸업·신체 성장 등으로 입지 않는 교복을 기증받아 재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 구는 2월 14일까지 학교 및 동 주민센터, 구청 7층 여성보육과에 수거함을 비치해 교복 등을 수거한다. 기증된 교복은 2월 18~19일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500~3000원에 판매된다.

수급자 자녀 등에 학원비 지원

서울시 강북구가 관내 민간학원들과 함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긴급복지가구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자녀다. 신청 기간은 27일~2월 4일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샤를 대제 사망

814년 1월 28일 서유럽을 통일하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즉위한 카롤링거 왕조의 군주 샤를마뉴가 늑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독일어로는 카를 대제인 그는 192cm의 장신과 낙천적 성격으로 수많은 영토전쟁을 벌여 로마제국 이후 서유럽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문화를 부흥시켜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 현재 유럽의 정체성에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럽의 아버지'로 불린다. 샤를마뉴 사후 30년 만에 제국은 분열되고 서유럽은 이후 다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미성년과 성관계 폭행·협박 없어도 성폭행으로 처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고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다혜기자 ydh@

25평 공간에 책 1만6000권 '빼곡'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⑤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이명애 대표

24년전 문연뒤 숱한 위기 극복 아이들 놀이방 겸 유치원 역할 10년 뒤에도 '와글와글'했으면



24년 전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몇몇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뜻을 모아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도서관,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선물하고자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들이 1990년대 중후반 문을 닫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난곡도서관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 주민도서관이다. 또 아이들의 놀이방이자 유치원이며 엄마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 옛이야기로 수업하는 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이명애(46·사진) 대표는 "여러 번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 도서관을 "오뚝이 같은 존재"라고 했다.

새숲 도서관은 82㎡(약 25평)의 작은 규모지만 소장 도서는 1만6000여 권에 달한다. 타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도 많이 애용한다. 이 대표는 옛날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옛이야기 사업단'을 양성하고 있다. 2007년 시작해 20명의 여성들을 옛이야기 강사로 키웠고, 현재까지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억지로 책 읽기를 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하고 책 읽기가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평생 독서의 힘이 된다"며 규정된 독서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혼자 글을 읽기 시작하면 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줄어드는데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도 자꾸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된다. 또 아이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는 "정작 어른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했다.

◆ 내 집 같고 행복한 도서관

새숲 도서관은 3월에 100평의 건물로 이전한다. 다양한 교양 강좌,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등을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형편상 임대료나 월세가 비싼 건물로는 옮기지 못한다.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건물로 무상이나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건물이다. 이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청장 면담을 추진해 함께 일궈낸 결과다.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바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누워서 책도 보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서관, 내 집 같고 행복한 도서관, 책이나 사람, 또는 그 무엇으로든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도서관이 되길 바라죠.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百萬租
互聯網
河南土豪晒銀紙招女友。

metro Canada


Techno. Une applicati
pour démissionner

L'application pour iPhone Quit Your Job permet d'annoncer à son patron qu'on démissionne grâce à un simple message texte. Créée par celui à qui on doit BreakUp Text, cet outil ne devrait peut-être pas être utilisé par ceux dont le patron n'a pas le sens de l'humour (ou ne comprend pas l'anglais). C'est qu'on a le choix entre ces trois messages succincts : «I'm sick of the corporate world», «I want to get rich» ou «I found a

Marketing

L'équipe s'est associée a l'entreprise de recherch TheLadders pour créer c cation. C'est donc dire q le message envoyé, les chômeurs seront redirig site de TheLadders pour un nouvel emploi.

MÉTRO

‘사직서 문자’ 대신 보내주는 앱 등장

최근 캐나다에서 직장을 그만둘 때 메시지를 대신 써주는 스마트폰 앱이 등장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직장을 그만두세요(Quit Your Job)’란 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사장에게 대신 문자메시지 내용을 써주는 앱이다.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종류로는 ‘이 회사에 질렸다’, ‘부자가 되고 싶어 떠난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로 한정돼 있으며 영어로만 보낼 수 있다.

metro Sweden


cigg med
lura unga

Metros avslöjande. "Kan tycka att det ser häftigt ut

마리화나 함유된 전자담배 몰래 유통

스웨덴에서 마리화나가 함유된 전자담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웨덴 세관청은 지난 24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스웨덴 국경을 넘어 몰래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스 한손 스웨덴 세관청 위원은 이 전자담배는 마리화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고 피우는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주일 ‘가짜 여친’ 돼주면 2억

중국 남성 ‘춘제 귀성 동행’ 조건 내걸고 공모…단 이틀 만에 5000여명 면접 신청 쇄도



솔로들의 ‘명절 스트레스’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최근 중국의 데이트 앱인 ‘웨이쥐(微聚)’에서 허난성 정저우(鄭州)의 돈 많은 남성이 설에 부모에게 소개할 가짜 여자친구를 찾는다며 100만 위안(약 1억7900만원)을 내걸었다.

이 남성은 ‘25세 이하, 키 168㎝ 이상, 체중 50㎏ 이하, 예쁜 얼굴, 학력 대학교 이상, 박사 또는 처녀 우대, 사례금 10%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하는 여성은 일단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봐야 한다. 그는 면접에서 예약금 20만 위안을 일단 지급하고 일이 다 끝난 후에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을 개인 전용기로 ‘모시겠다’며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부모에게 이번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남성이 올린 글은 많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 네티즌은 “100만 위안이면 정저우에서 방 두 개짜리 집을 한 채 사고, 아우디 A6를 살 수 있는 돈이다. 15년간 먹지도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겨우 일주일 여자친구인 척하면 된다니!”라며 푸념 섞인 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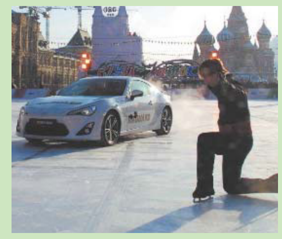
“출연료가 톱배우보다 더 높다” “내가 여자가 아닌 게 아쉽다” “드라마 ‘가짜 여자친구와 설 쇠러 가기’의 실사판이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이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263명의 여성들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학생은 이 같은 일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에서 ‘애인을 빌려드립니다’라는 매장을 열었다. ‘구매자’는 ‘임시 애인’을 보고 맘에 들면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하고 직접 만나 협상을 한 뒤에 돈을 지불하게 된다. 여성들의 평균 일당은 400~800위안(약 7만~14만원) 정도다.

지난달 푸젠성 푸저우(福州)에서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 남성이 타오바오왕에서 ‘임시 여자친구’를 구했다. 이 남성은 연말과 1월 1일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조건으로 1500위안(약 26만원)을 지불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모스크바 붉은광장 탄성

스턴트맨들 드리프트쇼

최근 영화 ‘분노의 질주’ 스턴트맨들이 모스크바 붉은광장 특설 링크에서 시민들에게 아찔한 자동차 드리프트 쇼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눈으로 덮인 링크에서 고난이도의 드리프트 묘기를 선보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영화에서 활약했던 일본의 드리프트팀 ‘오렌지’의 카레이서 수에나가 나토는 “드리프트 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두 대의 자동차가 왈츠 음악에 맞춰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듯한 드리프트 묘기를 선보였고 이어 등장한 피겨 선수와 자동차의 하모니에 관중들은 연신 환호성을 질렀다. 한 관중은 “자동차를 조종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피겨선수의 모습에서 마법사가 연상됐다”며 “자동차와 피겨 스케이팅의 이색적인 조화가 환상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객들이 보는 화려하고 떠들썩한 자동차 묘기와 달리 무대 뒤에서는 카레이서들이 레이서팀 단장 푸루세 히로케의 지도하에 질서정연하게 무대를 준비했다. 히로케는 “우리 팀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훈련했고 팀워크도 좋다”며 “정비사들의 실력도 뛰어나 드리프트 묘기의 성공률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색 자동차 묘기를 보기 위해 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모였다. 마리야 주코바는 “자동차 묘기가 여성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오늘 공연에 반했다”면서 “앞으로 자주 이런 공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1910.34 (−30.22)	코스닥	507.51 (−12.80)
금리(국고채 3년)	2.88 (+0.02)	환율(원·달러)	1082.50 (+3.00)

설 차례 비용 전통시장 18만원 백화점 31만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장보기 비용이 평균 21만6473원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88개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설 제수용품 25개에 대한 가격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통시장이 평균 18만44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일반 슈퍼마켓(19만4046원) ▲대형마트(20만9064원) ▲SSM(22만2785원) ▲백화점(31만1343원)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조기를 제외한 조기, 명태살, 황태포 등이 모두 전통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렸다.

/김민지기자 minji@

대출사기·스팸 '2차 피해' 현실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스미싱 문자 급증
대부업체에 흘러들 경우 서민 신용 하락 우려

카드 등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장과 그로 인한 예방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상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롯데, NH농협 등 3개사에서 일어난 정보 불법 유출 영향으로 인해 스팸, 스미싱, 불법 대출 권유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 유출 이후 스미싱 문자가 1~7일 사이 2건에 불과했지만 8~21일 751건으로 급증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을 악용해 스미싱 사기범들이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서는 이번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파장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서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서민들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결국 이 자료들은 대부업체, 사채업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 당국 관계자의 의견이다.

광고나 스팸문자 등을 보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한 연체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영업인들이나 금융사기범들에게 넘어가는 계층은 부유층이 아닌 가난한 서민들"이라며 "이미 카드론 등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주 타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대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영업을 한시적으로나마 전면 금지 시켰다.

이는 정보유출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미 이 조치를 놓고 금융계 안팎에서 무리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M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정 실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일부 고액 연봉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은 일반 직장인들의 한달 월급보다 적은 수준이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신용 없는 카드3사, 싹둑 자릅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부의 반복적인 무감독 무대책 규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서민 금융 보호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자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13월 '보너스' 커지고 '마이너스' 줄고

올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를 정부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아 이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통해 보험료·교육비·개인기부금·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 지출액이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5967억원 대비 8163억원(10.7%)이나 늘어난 수치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돌려받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조9087억원에서 올해는 2조1578억원으로 2491억원(13.1%)이 늘어난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 보험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출도 1조1697억원에서 1조3765억원으로 2068억원(17.7%)이나 증가한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는 올해 9335억원으로 6.4%,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8891억원으로 13.4%, 의료비는 6613억원으로 11.2% 각각 늘어난다. 교육비는 1조475억원으로 유일하게 감소(2.4%)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지출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모두의 환급액이 10%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환급액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카드깡·휴대폰 대출 혐의 100여개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7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휴대전화 현금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해 고 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개 업자는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 결제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를 받은 78개 업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융통해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원기자

뉴스&뉴스



"설명절 음식, 한우로 만드세요"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설맞이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모델들이 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그네틱카드 인출 제한 내달 3일 예정대로 실시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다음날인 2월 3일부터 마그네틱(MS)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을 예정대로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의 경우 가맹점들의 단말기 전환율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카드 복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보안성이 취약해 위변조 사고가 빈발했던 MS현금카드를 반도체칩(IC칩)이 내장돼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1월부터는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특별 대책을 수립, 고객들이 카드를 교체토록 유도해 이미 발급된 MS현금카드의 99.6%가 IC현금카드로 전환됐다. /박정원기자

소비심리 23개월래 최고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달 CIS는 지난해 12월보다 2포인트 오른 109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2월(109) 이후 23개월 만에 최고치다. CSI는 100이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면 그 반대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나투어리스트
추천
겨울여행
1~2월 따뜻한 동남아
추천 01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39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방콕(1)-파타야(2/3)-방콕 ●산호섬에서의 자유시간
추천 02
캄보디아 천년의 역사 4일/5일
44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씨엠립(2/3) ●톤레삽 호수 및 수상촌 관광, 다양한 특식제공
추천 03
대만(아류/온천/화련) 4일
67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타이페이(3) ●야류해양공원, 온천욕 체험, 야시장방문
추천 04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39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3/4) ●피피섬, 팡아만(제임스본드섬), 왓찰롱 사원 관광
추천 05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49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3/4) ●미젤란십자가, 산페드로요세 등 시내관광
추천 06
보라카이 천상의 낙원 4일/5일
39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3/4) ●열대과일 시식, 오프로션 모기약 1인 1개 제공
추천 07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5일
54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하노이(1)-하롱베이(2) ●베트남 전통 수상인형극 관람포함
추천 08
발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섬 5일
699,000부터 ▶ 2월~3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발리(3) ●발리문화의 중심 '우붓지역' 관광(재래시장, 왕궁 등)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강남점 1600-6963
신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 뚜르드카페 내 위치
www.hanatourist.com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단, 개별여행 상품은 미적용)유류세는 상기 상품 가격 외 별도지불 하셔야 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나 '안내원 봉사료'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상품의 행사는 (주)하나투어에서 주관합니다.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숙소 : 2급호텔 이상

유명 다운점퍼 성능 비슷 가격 1.4배 차

한국소비자원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10종 비교
빈폴아웃도어 본파이어 보온성 최고 가격 최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27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아웃도어 다운 점퍼들이 품질은 비슷해도 가격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 아웃도어 다운 점퍼 10종의 가격 대비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대표 방한 의류인 다운 점퍼는 오리털이나 거위털 등 조류의 털을 충전재로 사용해 보온 효과를 높인 의류다.

평가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네파, 라푸마, 밀레, 빈폴 아웃도어, 블랙야크, 아이더, 코오롱 스포츠, 컬럼비아, K2(가나다순)다.

품질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종의 보온 성능 차이는 최대 2.3도로 비슷했지만 가격은 최소 46만8000원에서 최대 66만9000원까지 1.4배 격차가 있었다.

제품별로는 '빈폴아웃도어 본파이어'의 보온 성능이 조사 대상 10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가격은 46만8000원으로 제일 저렴했다. 가격이 가장 비쌌던 '밀레 빠라디소'(66만9000원)와 두 번째로 비쌌던 '라푸마 헬리오스 1'(63만원)의 하한 온도는 각각 영하 21.1도와 영하 20.6도로 40만원대 제품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네파 어멘티 메카니컬 스트레치' 제품은 시험 대상 중 유일하게 신축성 있는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강조했다. '노스페이스 카일라스'와 '블랙야크 B5XK3자켓#1' 제품은 충전도가 한국산업표준의 권장 기준 120mm 이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재의 부피를 의미하는 '필파워' 숫자가 높다고 보온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아웃도어를 이용한다면 굳이 값비싼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제사상 올릴 문어 가격 꿈틀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 코너에서 한 직원이 제수용 삶은 문어를 진열하고 있다. 이날 가락시장 도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23일 현재 국산 문어 가격(상·1kg)은 1만3064원으로 지난해 설을 8일 앞둔 2월 2일의 9700원에 비해 34.68%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제2의 키코사태 발생 우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변할 경우 고위험 파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박종열 한국은행 분석기획팀장이 내놓은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현재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39조8000억원으로 2012년 말(26조1000억원)에 비해 52.5% 증가했다.

특히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거래가 2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일반적인 스와프·옵션 등의 정형 파생상품에 조건을 더 붙이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을 합성해 만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거 환손실을 입힌 키코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박 팀장은 보고서에서 레버리지가 포함된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환율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큰 폭의 손실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지난해 6월 원·달러 환율이 매주 10원씩 16주간 상승했을 당시, 한 기업이 달러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환율이 특정 수준보다 오르면 명목 파생상품 계약 규모가 2배로 커지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약 40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통화옵션 시장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면서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급변하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이 위험 전이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KT 임원급 직책 절반으로…현장 인력 강화

황창규 회장 공식 선임 즉시 조직개편 단행



황창규(사진) KT 신임 회장이 27일 공식 선임된 가운데 곧바로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해 주목받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그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어려운 시점에 회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본 경험과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를 KT 경영에 접목해 대한민국 통신 대표기업 '1등 KT'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 방송을 통해 "회사가 맞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며 ▲지원부서 축소를 통한 임원 수 대폭 감소 ▲각 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되 행사한 권한에 대해 책임 부여 ▲숨은 인재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합리적 인사 등을 제시했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마친 후 현장 중심의 영업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KT 발표에 따르면 지원 조직의 임원급 직책 규모를 50% 이상 축소하고 슬림화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체 임원 수도 27% 축소했다.

이와 함께 KT그룹의 미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미래융합전략실'을 신설했다. 각 부문·실, 그룹사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KT 내부 경험이 풍부하고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통신 전문가를 전격 발탁했다. 남규택 부사장을 마케팅부문장으로 임명하고 KT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전문가인 임헌문씨를 영업할 예정이다. 현장 중시 원칙에 따라 상무보 승진자 중 현장 근무자 비율을 지난해 22%에서 45%로 2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재영기자 ljy0403@

LG전자 지난 4분기 스마트폰 영업 434억 적자

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 불구 中업체 약진에 세계 3위 위태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LTE 스마트폰을 포함해 분기 사상 최대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영업적자만 434억원에 이른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국 업체의 약진으로 글로벌 시장 순위도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7일 지난 4분기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132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G2' '넥서스5' 등 LTE 스마트폰의 선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476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직전연도 판매량 2620만 대과 비교해 82% 성장했고, 4분기 490만 대의 LTE 스마트폰을 판매해 종전 분기 최대 판매량이었던 직전 분기 300만 대를 상회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LG전자 휴대전화 사업은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70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이다. 일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은 7100만 대에 달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세계 3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올해 휴대전화 시장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LG전자의 휴대전화 부문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과 삼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 업체에게까지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일시적 '돈 갈증' 해소… 국내 투자자엔 악재

GS건설 1000억대 CB 발행 공시·롯데쇼핑은 리츠 상장 통해 1조 자금 확보

issue&view

韓기업 '싱가포르 투자' 러시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내 금융시장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잇따라 싱가포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에 더 낮은 금리에 유동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샘물 같은 존재다.

싱가포르는 역외 달러의 아시아 최대 허브 시장이자 홍콩에 이어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자금이 많은 홍콩에 비해 싱가포르는 장기 성격의 투자자금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GS건설, 코라오홀딩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GS건설은 1071억원 규모의 외화표지 전환사채(CB)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하기로 지난 24일 공시했다.

만기 5년, 이자율은 3.25% 수준이다.

GS건설은 이번 CB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과 올해 분양물량 확대에 따른 초기 공사비용 마련 등에 쓸 전망이다.

코라오홀딩스와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말 싱가포르 증시에서 글로벌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했다.

이번 GDR 발행으로 코라오홀딩스는 사업자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외화차입금 상환으로 부채 비율을 300%대에서 200%대로 낮출 여력이 생겼다.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등 '노크'

롯데쇼핑은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싱가포르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시장에 상장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 리츠 매각으로 롯데쇼핑은 1조원 상당의 유동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된 부동산은 향후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운영에는 변화 없이 롯데쇼핑이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리츠 시장이 활성화된 싱가포르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쇼핑은 이번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용 해외 CB, 국내 증시 부담 우려도

싱가포르에서 CB 등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주식으로 전환될 때 그 물량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경우 해외 CB 발행 소식에 공시 직후 거래일에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15년부터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비율을 고려할 때 향후 주가가 4%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CB 발행이 회사채 만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량 회사는 CB 등을 잘 발행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 구조가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이탈리아 유명 유모차 반값 판매 27일 서울 한강로3가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이탈리아 전통 유모차 브랜드인 잉글레시나의 하이브리드형 유모차 트립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사전 기획과 대량 매입으로 50%가량 가격을 낮춰 오픈마켓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국 80여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제공

세뱃돈보다 두둑한 알바 모았네

알바몬 '설날 단기 채용관'

설 연휴를 맞아 아르바이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 사이트 알바몬은 '2014 설날 단기 알바 채용관'을 신설했다. 알바몬 설날 단기 알바 채용관은 매장 관리·판매,백화점·유통점,택배·배달 등 명절 단골 알바 구인·구직 공고를 따로 제공한다. 사람인의 알바 채용 사이트 알바인도 명절 구직 소식을 담은 '겨울 알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설 명절 특수를 누리는 업종은 유통 업체와 영화관, 전화 상담 등이다.

최근 택배회사에서 명절 단기 알바를 했다는 한 대학생은 "연휴 시작 전인 29일까지는 배달을 마쳐야 하는데 물량이 밀리는 상태"라면서 "택배 알바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유니폼은 보온이 약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전화상담원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밀려드는 전화 주문 접수를 소화하기 위해 1주일 이하 단기 알바 모집 공고를 실시간으로 올린다. 최근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일부 카드사는 고객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원을 증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빨간 날에도 고객센터는 24시간 가동해야 한다"면서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인력으로 급한 일손을 메우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명절 전 '취업 희망' 한번 더 노크

설 연휴를 앞두고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채용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한진은 홈페이지(www.hanjin.co.kr)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기획, 영업, 마케팅, 경영기획 등 13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로 토익 700점 이상자, 마케팅, 기획은 e-비즈 및 마케팅 관련 전공자면 된다.

서울메트로도 다음달 3일까지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사무, 운전, 차량, 기술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분야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취업 지원 대상자 등은 우대한다.

신입·경력사원을 동시에 뽑는 회사도 있다.

메가박스는 이달 말까지 지점, F&B, 제휴 광고, 콘텐츠 사업 등 6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학력 및 전공 제한이 없다. 31일까지 사람인 입사 지원 또는 홈페이지(www.megabox.co.kr)에서 지원하면 된다.

LS엠트론도 구매, 영업, 제조기술 등 7개 분야에서 신입을, 연구·개발, 교육, 경영 기획 등 16개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직무별로 외국어 능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다음달 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erecruit.lsmtron.co.kr)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농심 역시 홈페이지(recruit.nongshim.com)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경영 관리, 생산 부문에서 신입을, 외식 사업, 경영 관리 부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이국명기자 kmlee@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공기업 개혁 재차 강조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윤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월까지 5개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직을 걸고 각 공기업을 개혁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11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기관별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점검한 윤 장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3개 발전자회사 등 5개사를 전날 다시 불러 계획안을 살펴봤다.

윤 장관은 공기업 혁신을 강조하며 기관장직을 걸고 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없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영기자 boa@



롯데마트, 확 내린 마지막 3일 27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설을 임박해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30여 품목의 인기 선물세트 20% 카드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그중 일부 품목에 한해 최대 10% 가격 인하와 30% 카드 할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광역발전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됨에 따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화요일부터 27일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중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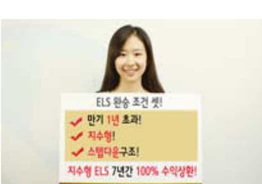
기존에는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된다. /유주영기자 boa@

신한금투 지수형 ELS '7년 불패'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7년간 판매한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 100% 수익 상환됐으며 평균 수익률은 연 10%대였다고 27일 밝혔다. 중위험·중수익의 대표 상품인 ELS는 주식시장의 여러 국면에 대응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신한금투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한 공모지수형 ELS를 분석한 결과, 만기 1년이 넘는 지수형 ELS 456개가 모두 수익 상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익 상환 기간은 약 7개월(218일)이었으며 평균 수익률은 연 10.07%를 기록했다.

신한금투는 "금융위기 당시 홍콩항성지수가 76% 하락했을 때에도 지수형 ELS는 수익 상환되는 저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신한금투는 100% 수익 상환을 보인 ELS의 특징으로 ▲지수가 기초자산으로 이뤄져 등락이 심한 종목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았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장기적인 추세 회복이 가능했으며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스텝다운형 구조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상환 기준점이 낮아진 점 등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신한금투는 "지수형 ELS를 매주 선보이고 있다"며 "최근 3개 지수 중 2개만 조건에 충족되면 수익 상환되는 '트윈스 ELS'로 특허를 받았으며 첫 조기 상환 배리어를 85%로 낮춘 상품도 인기"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두바이 왕자도 탐낸 변기

베스트오토 장석환 대표

"화장실 물·전기 낭비 잡자"
비데기사 출신 이사 함께
2시간 쪽잠 자며 매진해
무전원 자동 물내림 특허
대기업도 "그 기술 팔아라"



장석환 베스트오토 대표가 무전원 변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스트오토 제공

한류 아이템에 변기가 추가될 전망이다.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물을 내리는 레버를 만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동 물 내림 기술이 나왔는데 문제는 전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대형 병원의 경우 변기가 3000개에 이른다. 결국 변기 전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 하고 별도의 전기 배선을 해야 한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3년차 중소기업 베스트오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필요 없는 자동 물 내림 변좌를 생산한다. 인체 무게를 이용한 유압이 원리인데 관련 특허만 10여 개에 이른다.

물만 자동으로 내리는 게 아니다. 대소변을 구분해 각각 15·6ℓ의 물을 내보내 절수 효과도 크다.

이 회사 장석환(45·**사진**) 대표는 기자를 변기 위에 앉아서 맞았다. 예상(?)은 했지만 물건이 물건인 만큼 다소 당황스러웠다.

"변기 하면 지저분하고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두바이의 왕자가 찾아와 돈은 부르는 대로 줄 테니 모든 권리를 넘기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코트라가 80개국 120개 무역관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설립된 이 회사가 '히든 챔피언'으로 떠오른 것은 기술 덕이다. 장 대표와 비데 설치기사 출신인 이동진 이사는 1년간 하루 평균 2시간을 자면서 기술을 개발해왔다.

장 대표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세종시 정부청사, 우리은행, 현대차, 코엑스, 연세대 등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 현대·한라·이랜드건설 등의 아파트에도 납품을 앞두고 있어 기업 간 거래(B2C)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오토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도세'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물값이 130%나 오른다. OECD가 한국을 '2030년 물 부족 국가 1위'로 지정한 만큼 수도세는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1t에 900원인 가정과 달리 빌딩은 t당 3000원의 수도세를 내야 한다. 빌딩에서 쓰는 물의 절반은 화장실에서 나간다.

법 규제도 까다롭다. 공중화장실에 절수 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전원 변좌가 포함된 비데 가격이 40만원인데 일반 건물에서는 17개월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료, 벌금을 모두 아낄 수 있는 '한류 변기'의 위력이죠."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현대차 신형 쏘나타 파워·연비 높인다

3월 다운사이징된 엔진·변속기 장착해 출시

현대차가 오는 3월쯤 출시할 신형 쏘나타(LF)에 다운사이징된 엔진과 변속기가 장착된다.

2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2.0 CVVL 가솔린과 2.0 가솔린 터보 외에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현대차는 자사 중형차 최초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을 조합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204마력으로, 현재 벨로스터 터보 모델에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벨로스터 터보는 자동변속기가 조합된 반면에, 신형 쏘나타는 DCT와 조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신형 쏘나타의 1.6 터보 엔진은 최대 토크 27.0kg·m를 내 쏘나타 2.0 CVVL 모델(172마력·20.5kg·m)보다 강력한 파워를 낸다.

현대차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파워와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DCT는 수동변속기 메커니즘 기반에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더한 변속기로, 좋은 연비와 빠른 변속 감각이 특징이다. 다만 아직까지 현대차가 DCT를 양산차에 적용한 것은 벨로스터 일반형뿐이고, 벨로스터 터보에는 장착하지 않았다. 이는 터보 엔진의 높은 출력을 DCT가 감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신형 쏘나타에 적용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한국, OECD서 5위로 밀려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 5위를 기록했다.

27일 OECD의 '브로드밴드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에서 한국은 호주,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 통계에서 한국은 6회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012년 12월 4위로 밀렸고, 이번에는 5위로 내려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00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 102.9건을 기록했다. 호주는 114.0건, 핀란드 112.9건, 스웨덴 107.9건, 일본 105.3건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68.41건이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일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해 2분기부터 모바일 가입자를 집계할 때 태블릿 PC나 모바일 라우터 가입자를 포함하면서 7위(2012년 12월)였던 순위가 4위로 급등했다. /박성훈기자

조리실 만들고… 단독 장점 결합하고… 아파트도 '하이브리드'

경기 불황 속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기능을 한데 갖춘 '하이브리드' 상품이 산업 전반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건설사마다 새로운 서비스와 시설을 도입, 수요자를 유혹하는 중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던 '하이브리드(hybrid)' 개념이 주택 시장에도 속속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임에도 특급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구조들의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는 식이다.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 중인 두산중공업 '트리마제'는 수준 높은 호텔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60㎡ 이상의 조리실을 만들어 기존 아파트의 조식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아침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외 청소, 발레파킹, 컨시어지 서비스 등 특급호텔에서나 볼 법한 서비스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설계나 구조에서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부 특화 평면을 개발, 지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1·2층을 복층 구조로 설계하고, 전용 출입구와 주차장, 마당을 갖춘 타운하우스 평면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분양한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는 타워형 주동임에도 판상형 구조를 접목한 평면으로 인기를 끌었다. 타워형 주동은 화려한 외관을 지닌 반면 공간 활용 및 통풍·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왔다. 오는 3월 일반 분양되는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A-101블록)' 역시 일부가 타워형임에도 내부는 모두 판상형 구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선옥기자

집안공간 '30㎝의 마법'

분양돋보기

■ 대림역 포스큐 오피스텔

본격적인 월세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일대에서 2년여 만에 '대림역 포스큐(POS-Q)'가 신규 공급된다. 2년 전보다 가격은 낮췄으면서도 상품 경쟁력은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배후 수요는 기본, 역세권에 쾌적성까지 갖춰

서울 구로구 공원로 11에 위치한 '포스큐'는 지하 4층~지상 20층, 1개 동, 전체 464실 규모다. 오피스텔 289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75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9.01~21.25㎡ 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A타입이 354가구로 가장 많다.

포스큐가 들어설 구로구 일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가 조성돼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향후 'G밸리 2020프로젝트 비전'에 따라 첨단기업 비율은 93%까지 높아지고, 25만 명의 고용 인구가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단지'라면 자칫 '삭막함'을 연상할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에서도 알 수 있듯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거리 공원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데다,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도 도보 1~2분 거리다.



대림역 포스큐는 샤워부스 내 샤워기와 세면대가 일체형으로 시공, 30cm가량의 추가 공간을 확보했다.

샤워기·세면대 일체형 샤워부스로 추가 공간
역까지 걸어서 5분거리
분양가 1억2000만원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이른바 싱글벨트라 불리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까지는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1·2호선 신도림역도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통한 임대료 절감 효과 기대

단지에는 그간 아파트 위주로 도입됐던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적용됐다. 우선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공용 부분 전기료를 충당할 예정이다. 또 새나가는 에너지를 잡기 위해 5층 이하 저층 외벽에 단열재 마감 후 석재를 추가 시공하고, 단열 효과가 뛰어난 로이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대 안에는 LED 등도 적용된다.

포스큐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김기옥 커먼컴 대표는 "매달 월세를 내는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는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이라며 "관리비가 줄어들 경우 임차인은 사실상 임대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쉽게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세대 내부는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옷장, 신발장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샤워기와 세면대를 일체형으로 시공한 샤워부스를 제공해 30cm의 추가 공간을 확보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인 A타입 기준으로 1억2300만~1억2900만원대(부가가치세 포함)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융자 조건이다.

생보부동산신탁이 시행을, 포스코플랜텍이 시공을 맡았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마련돼 있다. 2월 초 분양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반도건설 임직원 50여 명이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찾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홀몸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들에게 떡국 배식을 하고 있다.

건설사 '나눔 릴레이' 계속된다

새해 들어 건설사들의 기부 및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만큼, 어려운 이웃들도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반건설 사내 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는 서울 서초구청 강당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설날 복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한미글로벌 700여 명의 직원들도 전국 4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들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나눴다.

앞서 23일 반도건설은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에 회사와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준비한 떡국 600인분, 생활용품 500개 세트를 전달했다. 전달식 후 반도건설 임직원 50여 명은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홀몸 노인과 장애인, 지역 주민들 600여 명의 떡국 점심 배식과 식사 수발을 들었다.

또 한화건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복지시설 4곳을 찾아 명절 음식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23일 이사장은 노원구 하계동 '동천의 집'을 방문해 이곳 소속 동계스포츠 선수단에게 새해 복주머니 등을 선물하며 덕담을 나눴다.

지난 15일에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4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정 사장의 성금은 광주지역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초대형 커뮤니티시설 갖춘 제주영어교육도시 '삼정G에듀'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한창인 제주영어교육도시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정G에듀'가 잔여 물량을 분양 중에 있어 눈길을 끈다.

삼정G에듀는 지하 1층~지상 4층, 46개 동, 전체 701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단지 내 제주 최대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 원스톱 리빙 라이프를 구현한 게 특징이다.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탕과 건식사우나를 갖춘 남녀



제주영어국제도시에 분양 중인 '삼정G에듀' 투시도.

사우나, 노래방, 옥상 바비큐 파티장, 북카페, 게스트룸,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또 154만㎡ 규모의 곶자왈도립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초록빛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며, 등·하교를 책임지는 학교별 셔틀버스 운행으로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

20cm 더 넓은 2.5m 광폭 주차장을 갖췄으며, 전 세대 일자형 남향 배치와 74㎡와 84㎡의 4베이 설계 등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하우스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NLCS 맞은편에 마련됐고, 서울에서도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 출구 인근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주)삼정기업이 시공한다.

분양 문의: 제주 모델하우스 064)794-1111, 서울 홍보관 02)2052-1011

2월 2만2586가구 입주… 전달보다 1만가구↑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월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전국적으로 입주를 계획 중인 아파트는 총 38개 단지, 2만2586가구다. 전월 1만1754가구보다 1만832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14개 단지, 7985가구가 입주한다. 경기가 422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3494가구, 인천 265가구 순이다.

입주 단지 가운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이 1148가구의 대단지로 눈에 띈다. 전용면적 55~157㎡로 구성됐고,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도보 10분가량 소요된다.

지방에서는 24개 단지, 1만4601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전남이 3190가구로 가장 많고 ▲대전 2855가구 ▲울산 2358가구 ▲전북 1828가구 ▲부산 1218가구 ▲강원 1110가구 ▲경남 1068가구 ▲광주 635가구 ▲경북 339가구다.

이 중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는 '문수산 더샵'이 주인맞이에 나선다. 전용면적 84㎡, 총 1005가구다. 울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2014년 개통 예정) 등이 가깝다.

/박선옥기자

네이버 365일 '간송미술관 오픈'

미술검색서비스 시작



간송미술관의 국보급 미술품을 네이버에서 관람하게 된다.

네이버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협약을 통해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소장품들을 네이버에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송미술관이 외부에 작품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간송미술관은 1년에 2번 열리는 일반 전시를 통해서만 소장품을 공개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미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365일 간송미술관 작품들을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 자세한 작품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첫 온라인 전시회 '간송문화전'을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간송미술관의 대표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고려청자 등 국보급 도자기와 신윤복의 회화 '단오풍정', 김정희의 서예 '대팽고회' 등 역사적 예술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인건 간송미술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간송 소장품을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27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윈도 8인치 태블릿 미디어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8인치 태블릿에 탑재된 윈도 및 부가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태블릿 진화의 심장, MS

PC·모바일 다 사용 가능한 윈도 8.1 기반 태블릿 제품 시연회 화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패권'을 모바일로 확장하기 위해 재차 도전장을 던졌다.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윈도8.1 운영체제(OS)를 장착한 8인치 태블릿 PC를 잇따라 소개하며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장착한 스마트 기기를 겨냥했다.

27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 본사에서 레노버 '믹스2'와 에이서 'W4'를 공개하고 제품 시연회를 병행했다. MS가 윈도8 기반의 태블릿을 선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먼저 추가 생산을 요구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는 게 이번 행사 개최의 배경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윈도8.1 기반 태블릿의 핵심은 기기를 노트북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처럼 쓸 수 있지만 크기나 무게를 감안하면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로 이동 중인 직장인이 상사로부터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문서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파워포인트'를 구동해 수정·보완을 할 수 있다. 물론 노트북도 이 같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화면 크기와 좌석 간의 여유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믹스2'만 해도 아톰 베이트레일 쿼드코어 프로세서, 2GB 메모리, 128GB 저장장치, 블루투스 4.0, 배터리 7시간 지속 등 어지간한 노트북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최신 스펙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성능은 좋지만 휴대가 불편한 노트북, 들고 다니기는 좋지만 쓰임새가 제약이 있는 기존 태블릿 PC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가격도 40만원대로 평균 수준의 스펙을 지닌 노트북 대비 절반 가량이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패드나 아이패드에서도 윈도 앱을 사용해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윈도8.1이 깔린 태블릿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공짜로 쓸 수 있다.

M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을지 모른다. '스펙에서는 평준화가 된 태블릿 PC. PC에서 작업하듯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는 윈도 태블릿으로 갈아타라.'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폰뱅킹 악성앱 반년새 25배 급증

스마트폰뱅킹 관련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반년 만에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피싱사이트 연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앱을 악성 앱으로 교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등 정교한 방식의 악성 앱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안기업 안랩은 지난해 발견된 스마트폰뱅킹 악성 앱의 진화 추세를 분석한 '2013 모바일 악성 앱 변천사'를 통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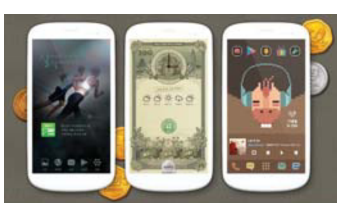
안랩에 따르면 뱅킹 악성 앱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384건이 발견됐다. 이는 상반기(56건)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3월에는 공인인증서 파일을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다량 발견됐다. 5월부터는 정상 은행 앱을 삭제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뱅쿤(Bankun)'류의 악성 앱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사칭한 지능형 악성 앱이 등장해 이용자의 눈을 속였다.

이호웅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스미싱을 포함한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 악성 앱이 올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의 실행을 자제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 주기적 검사, 소액 결제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스토리볼 다이어트 테마 콘텐츠 추가·경품 이벤트



다음이 다이어트 신년 계획을 돕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들의 다이어트를 돕는 버즈런처 '스토리볼 다이어트 테마' 등 새해맞이 테마 3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토리볼 다이어트 테마는 다음 스토리볼의 인기 저자인 YG 스포츠 트레이너 황상찬씨의 다이어트 비법을 주제로 만든 안드로이드폰용 홈스크린이다. 이 콘텐츠는 맞춤형 물 마시기, 만보기, 비만도 계산기 등 다양한 다이어트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은 스토리볼 다이어트 테마 출시를 기념해 인기 다이어트 코칭 앱 '눔 다이어트 프로' 평생권(1명) 및 2주 이용권(200명), 요가매트(5명) 등 건강 경품 증정 이벤트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개인정보 유통 꼼짝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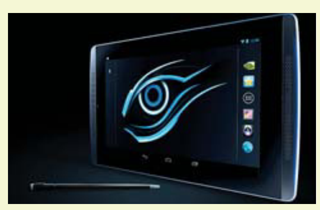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 원천 봉쇄에 나선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꼼꼼IT리뷰 – 테그라 노트7

노트북 그래픽의 한계에 도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태블릿 PC는 엄밀하게 말해 큰 차이가 없다.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사용 후기 등을 종합하면 안드로이드의 상품성은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 도시바, 레노버, 에이수스 등이 만드는 단말기는 로고만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같다.

최근 그래픽카드 제조사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국내 공식 공급원 제이씨현시스템과 내놓은 '테그라 노트7'은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제품에는 엔비디아의 테그라 4 쿼드코어 프로세서(4플러스1)가 탑재됐다. 모바일 기기에 단골로 사용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인텔의 아톰 시리즈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가 제조한 프로세서인 만큼 비주얼 관련 작업은 환상적이겠다!'

제품을 써보면 기존 프로세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눈요기'를 할 수 있다.

테그라 4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추가 장착된 72개 코어의 지포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새로운 게이밍 환경을 제공한다. 또 셀프 섀도잉, 역광보정(HDR) 라이팅, 실시간 물리 효과, 직물 시뮬레이션, 입자 효과 등 다양한 3D 게이밍 효과를 지원한다. 궁극의 비주얼 효과라 할 수 있는 게이밍 환경이 이와 같다면 다른 작업은 말할 것도 없다.

속도는 어떨까. 인텔만 해도 PC에 들어가는 CPU로 세상을 평정했고 퀄컴도 휴대전화가 나온 이후 관련 칩셋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PC용 프로세서가 전무했고,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는 '테그라'가 첫 작품이다. 듀얼코어 모바일 프로세서가 엔비디아의 손에서 처음 탄생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모바일 프로세서의 원조라면 원조인 테그라의 쿼드코어 제품 속도는 기대 이상이다.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살 때는 "프로세서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센스를 가져야겠다. 27만 9000원. /박성훈기자


DRAMAcube
칼을 품은 한 남자의 초고속 승진×복수 드라마
당하면 갚아준다!
두배로!!
드라마큐브가 선사하는 2014년 첫번째 프리미엄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더빙판 | 매주 수~목 밤 10시 • 자막판 | 매주 금~토 밤 12시
일본을 무릎꿇린 42.2%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
디지털 케이블 TV | 티브로드 71번 CJ헬로비전 45번(HD) 219번(SD) 씨앤앰 44번(HD) 206번(SD) HCN 43번 IPTV | Btv 79번 Olleh tv 74번



나이프로 다듬은 역동적인 말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코리아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바이오닉 나이프를 활용해 '역동적인 말들'을 형상화한 카빙 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마움 '맛있게' 전해볼까

외식업계 브랜드 특성 살린 실속있는 상품권·선물세트 눈길

올해 외식업계의 설 선물세트 특징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를 반영하듯 가격대는 낮추되 다양한 아이템으로 풍성하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 외식업계의 경우 우수 협력사와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거나, 자사의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미엄 돈카츠 외식 브랜드 사보텐은 선물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권은 1만원권, 5만원권의 2종으로, 전국 80여 개 사보텐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손수헌·키사라·싱카이·오리옥스·버거 헌터 등 아워홈이 운영하는 외식 레스토랑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사보텐도 29일까지 상품권 10만원 이상 구매 시 로스카츠 정식을 무료로 증정하는 설맞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젊은층이 직장 동료와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카페에 가지 않고도 커피전문점의 커피 맛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마노&머그 선물세트'와 '원두 선물세트' 등 총 2종으로 구성했다.

'마노&머그'는 카페베네의 스틱 원두커피 '마노 디 베네'와 두 가지 컬러의 '러브 머그컵' 2개로 구성된 세트다. '원두 선물세트'는 콜롬비아산 원두와 에스프레소 블렌딩 원두를 바로 내려 먹을 수 있도록 한 분쇄 원두와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곡선의 보디 형태로 그립감을 자랑하는 '2012 뉴 스텐텀블러'로 구성됐다.

와플&커피 전문점 빈스빈스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구성의 설 선물세트 2종을 출시했다. '빈스빈스 원두세트'는 브라질 산토스 원두 1봉과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 1봉, 총 2봉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매장 소비자가격보다 4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빈스빈스 텀블러 세트'는 브라질 산토스 원두 1봉·드립퍼·드립필터·텀블러·계량스푼 총 5가지 종류로 손쉽게 원두를 내려 즐길 수 있게 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는 설을 앞두고 한정판 기프트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했다. 할리스커피 기프트카드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선물할 수 있으며, 말의 해를 맞아 말·복주머니 등의 아이콘을 새겨 특별하게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제수용품도 3분요리 시대

떡국용 육수·모듬전 등 간편식 제품 매출 급증



간편가정식 제수용품이 대형마트에서 인기를 끌며 예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마트에 따르면 설 제수용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일부터 25일까지 간편가정식 제수용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5%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전류가 94%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떡국떡 53%, 떡국 사골육수 42% 등이 각각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간편가정식 제수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간편가정식 제수용품의 매출 증가는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맞벌이 가구 증가, 고령화 인구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마트 측이 기존 대량생산 냉동 간편가정식 제수용품 대신 고기와 버섯 재료를 기존보다 늘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피코크 모듬전·오색꼬치전·고기 완자전 등은 출시 5일만에 기존 상품보다 2배 가량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이마트 임대섭 간편가정식바이어는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사회가족구조가 변화면서 최근 2~3년 전부터 전통명절에도 간편가정식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한방샴푸세트 요즘 '선물의 대세'

애경 '현 프리미엄 세트' 추석 대비 매출 23% 성장



올해 설 명절에는 '품격의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운 각 업체의 단일 브랜드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이 지난 26일까지의 전체 설 선물세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약 55%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일 브랜드 선물세트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는 종합선물세트와 달리 특정 브랜드를 내세워 하나의 제품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 브랜드 선물세트의 경우 범용적인 선물세트보다 받는 이의 취향을 고려한 구매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애경 측은 분석했다.

특히 단일 브랜드 선물세트 시장에서도 한방 콘셉트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의 '현 프리미엄세트'는 첫 선을 보인 작년 추석 동기 대비 23% 성장하는 등 한방샴푸 선물세트의 매출 증가가 컸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인 링크아즈텍 자료에 따르면 한방 콘셉트의 선물세트는 2012년 추석과 비교해 올해 설에는 해당 제품군의 판매 비중이 22%에서 32%로 10% 이상 성장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설 선물 택배주문 마감 임박

서울 외 전국 오늘 오후 2시 연휴기간 전 매장 정상영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28일 오후 2시까지 설 선물세트 택배 주문(전국 배송)을 마감하며, 서울지역에 한해 29일 오후 2시까지 주문 시 무료 배송해준다. (한우 프리미엄·찜갈비·왕세트1호·보신세트품절)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 우떡갈비(1박스·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흑임자한 돈너비아니(2박스·720g) 구성의 '한우왕세트2호'는 2만8300원에 판매한다.

쇼핑몰과 전화 주문, 전 매장을 통해서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4500원, '칠칠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 4만4500원에 최대 43% 할인 판매한다.

한우불고기1호(1.8kg)는 6만원, 술래양념1호(16대) 8만원,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 3만1900원,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 3만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매장에서는 정상 영업을 실시하며 선물세트도 현장 판매한다. 또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준다. 늘봄농원점은 31일부터 2월 말까지 결제 금액에 따라 1만원권 상품권(최대 4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정영일기자

정관장 홍삼 당일 무료배송

KGC인삼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정관장 홍삼제품에 당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반 택배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국 정관장 가맹점과 직영점(백화점·마트·농협·면세점 제외)에서 29일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20만원 이상 구매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삼정 플러스는 물론 선물세트 등 부피가 큰 제품까지 배송 가능 지역에 한해 하루 안에 무료 배송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송 가능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및 중소도시까지다.

연 매출 2조 '황금면발' 익는 라면 시장

국내 첫 소개된지 50년 만에 대기록…국민 1인당 연간 69개 소비



국내 라면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 2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3년 국내에 라면이 처음 소개된 이후 50년 만이며 1조원 돌파 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1조원 매출 달성은 국내 라면 판매를 시작한 이래 35년 만인 1998년에 기록했었다.

27일 농심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전체 라면 시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1조9800억원)보다 1.5% 성장한 약 2조1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라면 업계의 매출이 신장한 것은 Modify(변경하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기존의 레시피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섞어 먹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인 '모디슈머'가 일으킨 '짜파구리' 열풍과 함께 신라면블랙·참깨라면·불닭볶음면·팔도비빔면 등 각 사의 '전략 제품'이 시장을 창조하고 확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농심 측은 분석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섞어 먹는 트렌드는 이른바 '국물 없는 라면 시장'을 확대하면서, 각 사의 제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거세게 불었던 '짜파구리 열풍'은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짜파게티는 2013년 누적 매출 순위에서 안성탕면을 제치고 처음으로 2위에 올랐으며, 너구리도 연 매출 1000억원으로 파워 브랜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오뚜기는 전략 제품인 참깨라면(16위)의 인기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라면 업계 2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간 판매 순위 19위에 올랐다. 팔도도 여름철 전략 제품 '팔도비빔면'을 8위에 올리며 비빔면 최고 전성시대를 누렸다.

또 소비자 기호를 넓힌 프리미엄 라면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농심 신라면블랙은 재출시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모으며 15위에 랭크, 프리미엄 라면 시장을 성공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의 꽃게짬뽕도 시장 안착에 성공해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농심 면마케팅팀 심규철 팀장은 "2013년은 하얀 국물 라면이 빠진 자리를 각 사의 전략 제품과 모디슈머 소비 트렌드가 대신 메꿨다"고 평가하고 "세계 라면 소비가 2012년 최초로 연간 1000억 개를 넘어섰고 한국도 2조원대 시장에 진입하는 등 국내외 라면 시장은 더디지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심 팀장은 또 "지난 1980년대 농심이 '라면은 국물 맛'을 강조하며 신라면·안성탕면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주도했듯이, 올해부터는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한 제품이 전체 라면 시장의 규모를 키울 것이다"며 "기름에 튀기지 않은 저칼로리 건면 제품이나 다양한 맛의 신개념 용기면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때, 국내 라면 시장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라면협회가 세계 각국 라면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총 라면은 35억2000만 개로 세계 7위에 랭크됐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69개의 라면을 먹은 것에 해당한다.

1위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 440억3000만 개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141억만 개, 일본 54억1000만 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스키장 시식행사 펑펑 쏟아지네

현대약품 '프링클' 제품 등 스키어 대상 샘플링 풍성



식음료업계가 눈 쌓인 스키장에서 자사 제품의 시식 행사를 하는 등 체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 25일 강원도 엘리시안 강촌에서 비타민 C 음료 '프링클'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샘플링 현장에는 서울예대 개그 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스키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농심은 이달 말까지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서 라면 1만여 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고객 행사를 진행한다. 스키장 고객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농심 카페테리아에서 라면을 무료로 즐기거나 구입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얻어진 판매 수익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의 '팻다운 아웃도어'는 다음달 말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휘닉스파크에서 '팻다운 아웃도어 스키장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와 함께 팻다운 아웃도어와 함께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현대약품 식품마케팅팀 김성훈 팀장은 "스키·보드는 체력 소모가 많아 수분 보충 및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파 속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스키장에서 시식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오란씨와 함께하는 추억의 귀성열차

동아오츠카 30일 용산역서 기차표 제시 고객들에 간식



동아오츠카가 설날을 맞아 귀성객들을 위한 간식 증정 이벤트 '오란씨와 함께하는 추억의 귀성열차'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가오는 명절에 고객들에게 추억까지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동아오츠카는 오는 30일까지 KTX 용산역 아이파크몰 패션관 1층에서 열차표를 제시한 고객에게 오란씨와 삶은 계란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재현 동아오츠카 홍보팀장은 "이번 행사는 최근 복고 열풍에 따른 설맞이 추억 마케팅으로 귀성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사랑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받고 싶은 선물 '조 말론 레드 로즈 플라워 박스'



향수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 말론 레드 로즈 플라워 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말론 레드 로즈 플라워 박스는 조 말론 런던 코롱을 레드 로즈 생화와 함께 크림색 박스에 담아 포장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이다. 플라워 박스에 사용되는 향수는 '프러포즈 향수'로 유명한 조 말론 런던의 '레드 로즈' 코롱을 포함해 조 말론 런던의 모든 코롱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서는 플라워 박스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은 코롱 100㎖ 1개 구입 시 24만원, 코롱 30㎖ 1개 구입 시 12만원.

/박지원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환아들 위문 공연 27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한 환아가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마련한 '설날 희망드림' 위문 공연을 보며 웃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명절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환아 및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환아들은 색동옷을 입은 캐릭터와 즉석사진을 찍고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롯데월드 제공

metro entertainment

“나문희 선생님이 내 할매 연기 교본”

‘수상한 그녀’ 개봉 첫 주 100만 돌파 흥행 주역 **심은경**

영화 ‘수상한 그녀’(22일 개봉)에 출연한 심은경(20)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성인이 된 후 첫 작품인 이번 영화에서 원톱 주연을 맡아 두 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을 책임진 것도 대단한데, 같은 날 개봉한 ‘대세남’ 이종석과 ‘흥행 배우’ 황정민의 영화를 제치고 개봉 첫 주 1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다. 새로운 명절 스크린 퀸이 탄생할 전망이다.

나문희 선생님 따라 다니며 연습

직접 마주하니 얼굴이 화면에서 보다 더욱 앳되고 풋풋했다. 이런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할머니역을 구성지게 소화했느냐고 묻자 “나문희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동작과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아들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머니 오말순(나문희)이 꽃처럼 예뻤던 스무살 오두리(심은경)로 돌아가 빛나는 전성기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심은경은 마음은 할머니인 오두리를 천연덕스럽게 연기했다.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주변에서 연기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쑥쓰럽기만 한 듯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미국 유학 중이던 지난해 봄 제의를 받았어요. 시나리오가 재미있어서 무척 출연하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망칠까봐 부담이 커서 고사했었죠. 전 아직 늙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세 남자 중 으뜸은 70대 박인환

극중 촌스러운 의상을 입고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맛깔나게 펼쳐 보이지만 매력은 빛을 발했다. 깜찍하게 윙크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사랑을 받은 세 남자 이웃집 박씨(박인환), 방송국 훈남 PD 한승우(이진욱), 손자인 반지하(진영)는 물론 남성 관객들의 마음까지 녹이기 충분했다.

“세 남자 배우 중에는 박인환 선생님과 촬영할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도록 ‘연기를 더 신나게 하라’고 응원해주셨죠. 그래도 선생님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신을 찍을 때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컷 소리가 나면 어깨를 주물러드리곤 했어요.”

영화 속 ‘나성에 가면’ 등 1980~90년대 추억의 가요들을 재해석한 곡들을 부르는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다. 심은경은 “내가 직접 부르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관객에게 진심 있게 다가가기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욕심을 드러냈다.

실제 음악 취향도 여느 스무 살 아가씨와 다르다. 주로 클래식을 듣는 편이라 요즘 아이돌 가수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손자로 나왔던 B1A4 진영 오빠는 좋아한다. 열심히 해서 팬이 됐다. 그리고 유명한 엑소 정도는 안다”며 환하게 웃었다.





“촌티 의상 입고 맛깔나는 사투리
80~90년대 추억의 노래 직접 불러
클래식 좋아해… 아이돌 잘 몰라
영화감독도 해보고 싶어요 호호호”

성인 연기자 입지 다지고 싶다

당장의 목표는 성인 연기자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고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것도 아역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였고, 지금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입도 미뤘다.

“대학이 꼭 필요한 곳인지 모르겠기에 입학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주변에서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계속 권유해서 고민 중이고요. 만약 가게 되면 특례 입학으로 가서 연기 활동하느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텐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왕 갈 거라면 제대로 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어 “3년간의 유학 시절이 아쉽다”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영어를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지금은 일상 회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 영어에도 애착을 보였다.

연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지만 꿈 많은 스무 살이기에 미래를 정하지 않았다. “연기를 끝까지 할지 다른 진로를 택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영화감독도 해보고 싶고,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도 좋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김상곤(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3만6000개의 왕관 물결… 빅뱅 '대폭발'

사흘간 열린 서울 콘서트 시야제한석까지 팬 꽉차
3개월 한·일 투어 마무리… 19회 공연 관객 81만명



빅뱅의 다섯 멤버가 2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4 빅뱅+α 인 서울' 마지막 공연에서 무대 구석구석을 내달리며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이 월드 클래스의 위용을 과시하며 3개월간의 한·일 투어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 6대 돔 투어를 진행해 77만1000명을 동원한 빅뱅은 지난 24~2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4 빅뱅+α 인 서울'을 열고 3만6000명의 팬을 불러 모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총 19회의 공연으로 81만 명을 동원했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에서 1년여 만에 5명의 멤버가 모이는 자리라 여느 때보다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공연장은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야 제한석까지 팬들로 가득 찼다.

빅뱅은 지드래곤 월드투어, 대성의 일본투어, 승리의 솔로 앨범과 일본 활동, 태양의 솔로 활동, 탑의 영화 '동창생' 개봉과 솔로곡 발표 등 지난 1년 동안 솔로 활동으로 다듬은 역량과 매력을 한자리에 쏟아냈다.

2009년부터 매년 초 체조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빅뱅 콘서트는 팬들에게 연례 행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빅뱅에게도 팬들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공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리더이자 프로듀서인 지드래곤이 올해 여름 빅뱅의 정규 3집 발표 계획을 밝혀 팬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2012년 이후 2년 만에 발표하는 빅뱅의 새 앨범이 될 예정이다.

한편 빅뱅의 콘서트를 기념해 한국은 물론 페루·태국·터키·칠레·멕시코·아르헨티나·필리핀·중국 등 세계 각지의 팬들은 쌀화환 6658kg과 계란 900개, 라면 4380개, 연탄 1100장, 분유 48통 등을 기부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빅뱅은 정규 3집 발표 전까지 태양의 솔로 앨범 발표와 탑의 '타짜 2' 출연 등 개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녀시대·씨스타… K-팝 대표 총출동

'가온차트 K-팝 어워드' 내달 12일 개최… 300명에 티켓 증정 이벤트



201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초대형 시상식이 온라인과 모바일에 생중계된다.

음원 사이트 멜론은 다음달 12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3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를 PC 웹과 모바일 앱에 실시간 중계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각종 시상식을 싹쓸이한 무서운 신예 엑소를 비롯해 소녀시대·씨스타(사진)·걸스데이 등 K-팝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지난 24일 진행된 티켓 예매에는 팬들이 대거 몰려들어 7000장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한편 멜론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시상식을 즐길 수 있는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3일까지 멜론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티켓을 증정한다.

/유순호기자

'제 2의 장윤정' 나온다

트로트 신인 윤수현 데뷔… "타고난 재능 갖춰"



트로트 신인 윤수현(사진)이 장윤정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수현은 트로트 명가 인우프로덕션이 장윤정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솔로 트로트 가수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윤수현은 1988년생으로 2007년 MBC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KBS2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춰 트로트 계보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수현은 27일 방송된 KBS1 '가요무대'에서 프로 데뷔 무대를 열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윤수현은 기본기가 충실하고 트로트를 하기에 타고난 재능을 갖췄다"며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트로트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성운기자 ysw@

가인 'FxxK U' 뮤비서 주지훈과 위험한 사랑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아온 가인이 미남 배우 주지훈(사진 왼쪽)을 파트너로 '19금 영상'을 공개해 또 한 번 가요계를 들썩인다.

가인의 소속사 에이팝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화제가 된 가인의 신곡 'Fxxk U' 19금 티저 영상에서 실루엣만을 드러냈던 남자는 주지훈"이라며 "음원 및 뮤직비디오 공개를 앞두고 비밀에 부쳤던 남자 주인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주지훈은 뮤직비디오 본편에서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내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 스틸을 함께 공개하며 "주지훈은 깊고 도발적인 시선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다"며 "평소 가인과 친분이 있는 주지훈은 데뷔 이후 처음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전했다.

'Fxxk U'는 가인의 세 번째 미니앨범 '진실 혹은 대담'의 선공개곡으로 뮤직비디오에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남녀의 거침없는 사랑 표현이 감각적으로 담겼다. 피처링은 범키가 맡았다. 앨범은 다음달 6일 출시된다.

/유순호기자



팬과 약속지킨 AOA… '짧은 치마' 섹시 완결판 공개

걸그룹 AOA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신곡 '짧은 치마'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돌파하자 27일 '섹시 완결판' 스페셜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AOA는 27일 AOA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짧은 치마' 확장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이 영상은 '짧은 치마' 뮤직비디오 100뷰 돌파 공약으로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한 것이다"고 했다.

이 영상에서는 '짧은 치마'의 고난도 섹시 퍼포먼스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멤버들의 숨겨둔 반전 매력도 즐길 수 있다. '짧은 치마' 뮤직비디오는 27일 현재 120만2000여 뷰를 기록 중이다.

/양성운기자





‘신의 선물’ 아이돌 효과?

내달 첫방송 앞두고 이기광·바로 출연 ‘화제’… 흥행여부 주목

아이돌이 본업인 음악을 넘어 연기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능 엔터테이너 시대를 맞아 노래와 춤, 예능을 넘어 연기를 하지 않는 아이돌이 이상하게 보여질 만큼 배우 지망 아이돌이 대세로 급부상했다.

아이돌을 주연으로 삼은 작품들은 기획 당시부터 타깃 시청층을 10~20대의 젊은 세대로 잡는 게 일반적이다. 청춘 로맨스물이나 학원물에서 아이돌이 대거 주연을 꿰차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담을 그리는 데 있어 이들의 우상인 아이돌은 청소년의 꿈을 투영하고 형상화하는 데 효과가 높다. 몰입도 역시 커 방학 시즌마다 각 방송사에서는 아이돌이 대거 등장하는 학원물을 만드는 추세다.

지난해 크리스탈과 박형식이 출연한 SBS ‘상속자들’은 다양한 화제를 쏟아내며 25%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으로 주목받은 tvN ‘응답하라 1997’과 ‘응답하라 1994’ 역시 아이돌을 대거 투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방영된 SBS 수목극 ‘아름다운 그대에게’는 설리와 민호·황광희 등 아이돌을 대거 투입했지만 평균 시청률 5.2%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또 같은 해 방영된 KBS2 월화극 ‘드림하이 시즌2’도 정진훈·지연·효린 등 아이돌을 대거 투입했지만 6.6%를 기록했다.

아이돌의 인기도와 시청률이 비례하지 않았던 사례들에서 보듯이 결국 아이돌의 연기력과 철저한 준비, 작품의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배우로서 성공이 보장된다.

아이돌의 흥행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BIA4 바로(사진 오른쪽)와 비스트 이기광(왼쪽)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SBS 새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 흥행몰이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승우와 이보영이 주연으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는 ‘신의 선물-14일’은 다음달 첫 방송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이민호·박신혜 “사귄 적 없어요”

中 매체 열애 보도 부인



영화 ‘상속자들’에서 애절한 사랑 연기를 펼친 이민호(사진 오른쪽)와 박신혜(왼쪽)가 중국에서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부인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우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루머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박신혜와는 해외 프로모션 일정 때문에 마주칠 수도 없다”면서 “중국 에이전트에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혜의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다. 드라마가 현지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어서 나온 루머 같다”면서 이민호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신혜는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도 이민호와의 열애설에 대해 “그만큼 잘 어울렸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좋다. 지금까지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남자 배우”라면서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정말 외롭다”고 부인한 바 있다.

‘상속자들’은 최근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닷컴에서 누적 조회 수 8억 건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26일 현지 매체 일부는 주연배우인 이민호와 박신혜가 2개월째 비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민호는 한국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CCTV의 명절 특집쇼 ‘춘완’에 초청받아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 박신혜는 다음달 초 시작될 영화 ‘상의원’ 촬영을 준비 중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

‘아빠 어디가 2’ 출발이 좋다



MBC ‘아빠! 어디가 ? 2’ 출연진. /MBC 제공

MBC ‘일밤-아빠! 어디가? 시즌2’(이하 ‘아빠 어디가2’)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아빠 어디가 2’ 첫 방송은 11.9%(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난주 1기의 마지막 회와 동률로 나타났다.

이날 ‘아빠 어디가 2’는 2기 멤버들이 첫 번째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다. 기존 출연자인 윤민수·후(8) 부자에 성동일·빈(7) 부녀, 김성주·민율(6) 부자, 그리고 새로운 멤버인 안정환·리환(7) 부자, 류진·임찬형(8) 부자, 김진표·규원(5) 부녀 등 2기 라인업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맏형이 된 윤후의 한층 의젓해진 모습과 게스트로 참여해 이미 인지도를 높인 김민율과 성빈의 귀여운 모습이 친근함을 자아냈다. 처음 등장한 안리환·임찬형·김규원 등 새로운 어린이들 역시 특유의 귀여운 매력과 개성을 발산했다.

멤버 구성부터 화제가 됐던 ‘아빠 어디가 2’가 방송 초반의 적응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HOT PHOTO



비욘세 상 못받았지만 관심 한몸에… 세계적인 팝 디바 비욘세 놀즈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5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등이 시원하게 드러난 시스루 드레스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그래미 어워즈 단골손님인 비욘세는 이날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남편 제이지와 함께 6년 만에 합동 무대를 꾸미며 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 5개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유순호기자·AFP 연합뉴스

김우빈 팬클럽 창단식서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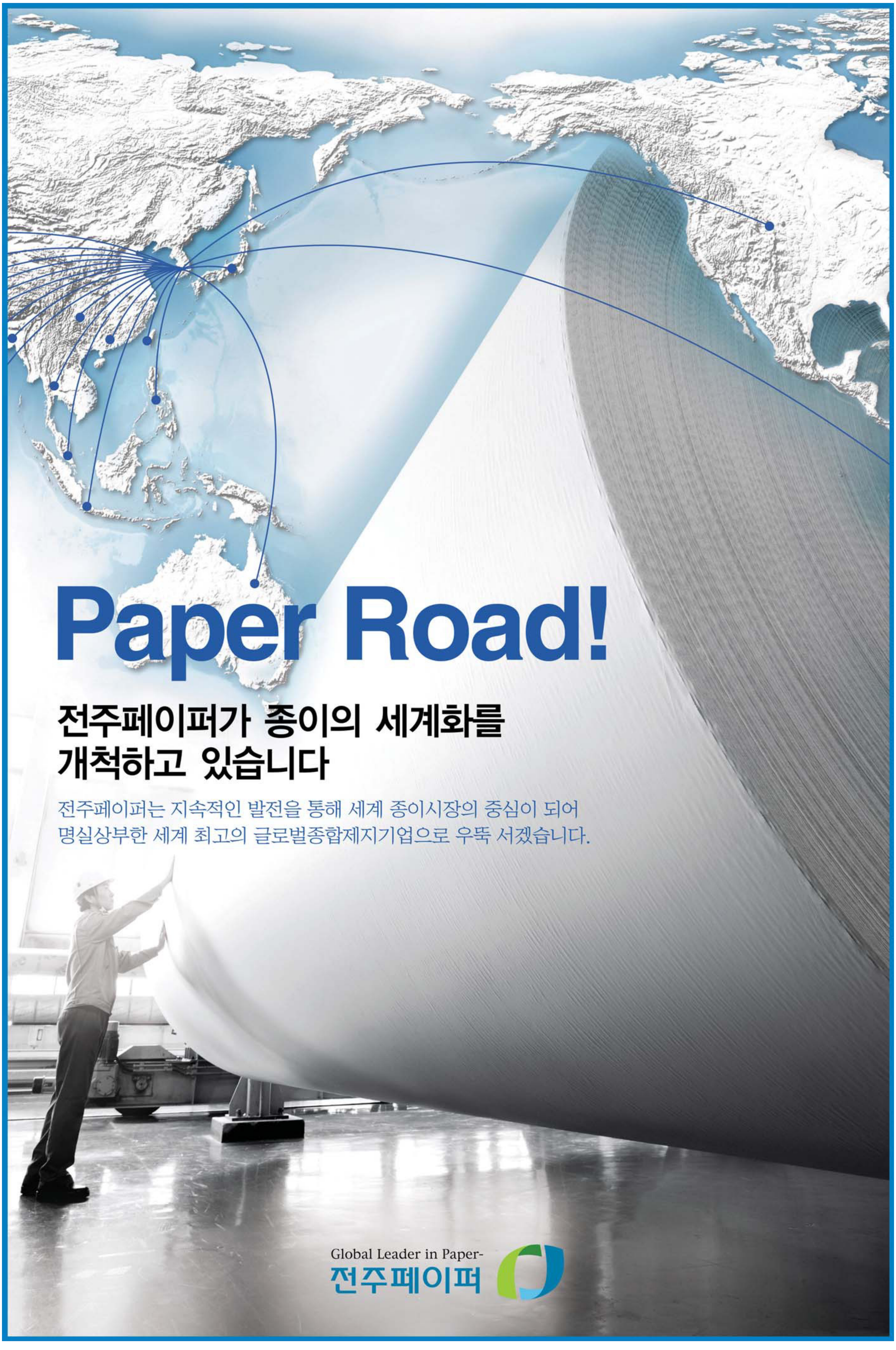
‘대세남’ 김우빈(사진)이 팬들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김우빈은 지난 25일 상명아트센터 계당홀에서 3000여 명의 팬들과 팬클럽 ‘우리빈’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팬미팅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MC 김기수의 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팬들과의 만남을 가진 김우빈은 이날을 ‘팬들과의 데이’로 지정했다. ‘아찔한 프로필’과 ‘김우빈 연관 검색어’ 코너 등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팬들이 준비한 카드섹션과 종이비행기 이벤트, 노래 선물, 팬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들에 감동한 김우빈은 눈물을 보이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팬에 대한 감사함이 커진다. 팬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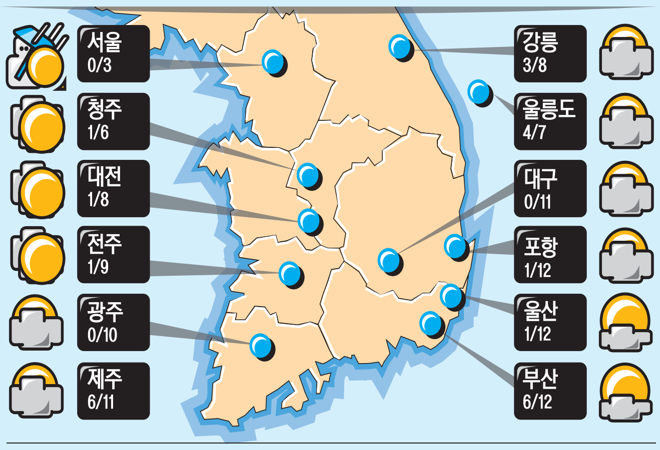
이어 “팬들의 고마움에 대해 마음을 자주 표현 못 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다. 이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날씨

1/28火 일출시각 07:39 일몰시각 17:5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인플루엔자로 인해 입원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보다 훨씬 심한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는 천식도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9	6				1	
7						8		5
	7			1		9	8	
6	9						2	7
	4	2		5			3	
9		3						6
	6				9	2		
			5	6				

		5					3	
					1	2		6
				3	5		8	
		7			9		6	
5		2				9		3
	1		3			4		
	5		4	2				
3		9	7					
	2					8		

스도쿠 정답

5	2	8	1	7	4	3	6	9
4	3	9	6	8	5	7	1	2
7	1	6	3	9	2	8	4	5
3	7	5	2	1	6	9	8	4
6	9	1	8	4	3	5	2	7
8	4	2	9	5	7	6	3	1
9	5	3	4	2	8	1	7	6
1	6	4	7	3	9	2	5	8
2	8	7	5	6	1	4	9	3

2	9	5	8	6	7	1	3	4
8	7	3	9	4	1	2	5	6
1	6	4	2	3	5	7	8	9
4	3	7	1	8	9	5	6	2
5	8	2	6	7	4	9	1	3
9	1	6	3	5	2	4	7	8
7	5	8	4	2	6	3	9	1
3	4	9	7	1	8	6	2	5
6	2	1	5	9	3	8	4	7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무엇'보다 '어떻게'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녹지그룹(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권 인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업은 개발 주체 및 투자주체 간의 대규모 소송이 시작된 상태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코레일의 투자금액 즉시 회수와 사업의 100% 민간 주도화에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의 대다수는 대뜸 '용산도 중국에 넘어가는거야'라며 고개를 젓는다. 아마 제주도 국제화에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투입됐다는 풍문이 이어지는 얘기지 싶다.

'김종욱 찾기'는 연극 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뮤지컬로, 영화로 다양화돼 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다. '대장금'은 TV 드라마로 시작돼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물론 라스베이거스에 한식 가게로까지 그 위세를 떨쳤다. 최근 탤런트 김수현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해를 품은 달' 역시 드라마 수출을 넘어 창작 뮤지컬로 거듭나고 있다. 소비자는 뮤지컬이라면 브로드웨이의 작품을 최고로 여겼던 편견을 버렸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창작 작품이 세계 수준을 넘어선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화천군은 겨울이면 산천어축제를 연다. 꽁꽁 얼어붙은 화천천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성인 1인당 1만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는 입장료를 내고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상품권과 7000원권의 지역특산물상품권을 받는다. 얼음 구멍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낚싯대 구입, 잡은 산천어를 굽거나 회를 떠서 먹기 위해 내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행사장 상품권으로 지불한다.

디자인은 CMF(Color, Material, Finishing)로 대변되는 유형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소비자와 상품 혹은 서비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무형의 디자인이 더 중요한 시대다.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도, 개발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업이든 건축이든 콘텐츠든 시작할 때 투입되는 디자인 시간과 비용이 중요하다. 초기 디자인이 탄탄하면 사업 진행 시간도 비용도 단축되고, 성과는 우수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본사 인사이동 언제가 좋을지 올해는 어려우니 좀 기다려야

시푸 남자 72년 7월 23일 오후 1시

Q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부서에 잔류했다 내년에 본사에 들어가는 방법, 지사로 내려갔다 내년에 본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의리가 있으나 상관(傷官)의 기세로 구덕의 흠을 보입니다. 말(언어)을 가리지 않아 점수를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일에 오마(午馬)는 객지 생활을 암시합니다. 본사로 이동하려면 관인상생(官印相生:관운과 문서운이 서로 생함)해야 하는데 2014년에 귀인과 합작이 어려워 본사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 관(官:부서 이동의 오행)이 들어오는 4월이나 9월에 약간의 희망이 있으니 기대를 놓지는 마십시오. 2016년부터는 운이 상당히 호전되니 공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인생 행로에서 2~3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탕화살(湯火殺)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거나 지구력이 부족한 단점을 참고하십시오.

딸들이 아예 척지고 살려고 해 젊은 시절 자매다툼 결국 해결

달별사랑 여자 1987년 11월 6일 양력 오후 1시6분
여자 1995년 5월 22일 양력 낮 12시15분

Q 아이 둘 다 삼재인데요. 큰아이는 이번에 회사를 옮겨 경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잘 옮긴 건지 궁금하고요. 둘이 티격태격하더니 지난해부터 아예 안 보려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속상합니다.

A 예로부터 삼재는 회두되어 왔으며 2014년은 늘 삼재라고 하여 나쁜 일이 있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천재지변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녀는 암록(暗綠:숨어있는 녹봉) 태생에 재물을 다루는 운이 관대(冠帶)지에 있어 옮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매간의 다툼은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겪는 일이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장녀는 양인(羊刃:양의 뿔)에 괴강살(보스 기질에 과격함)을 갖고 있으며 차녀 역시 양인살에 백호를 두었으니 일도 정진하는 끈기와 집념을 보이는데 서로 강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8일 (음 12월 2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양동 작전은 잘해야 본전이다. **60년생** 귀인 만나 거창한 청사진 그린다. **72년생** 눈치 보지 말고 제 갈 길 가라. **84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대답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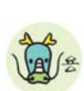
49년생 논리 비약이 심하면 손해 부른다. **61년생** 밋밋한 청사진은 버려라. **73년생** 일을 즐기니 능률이 오른다. **85년생** 꿈이 이끄는 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50년생 두 얼굴의 심복 조심할 것. **62년생** 삶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 보인다. **74년생** 도박에 빠져 나중에 땅 치지 마라. **86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뜻은 이뤄진다.



51년생 자녀 덕에 후한 대접받는다. **63년생**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나는 격. **75년생** 동료 험담은 못난이 경쟁하는 꼴. **87년생** 사람에 대한 경계 풀어라.



52년생 마음에 쌓였던 찌꺼기 없어져 유쾌. **64년생** 생각지 못한 이득이 생긴다. **76년생** 입은 닫고 귀는 활짝 열어라. **88년생** 조급하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53년생 남의 일 때문에 종일 바빠진다. **65년생** 필요 없는 것 버리면 편안하다. **77년생**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귀인 만난다. **89년생** 일이 잘 풀릴 때 더욱 겸손할 것.



42년생 아랫사람의 궤변에 분통 터지는 하루. **54년생** 뜻을 이루려면 약간 뻔뻔해야 한다. **66년생** 남의 좋은 일에 재 뿌리지 마라. **78년생** 꼼수 쓰면 자멸한다.



43년생 자녀의 걱정거리는 해결된다. **55년생** 거스를 수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편안하다. **67년생**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79년생** 상사의 충고 받아들여라.



44년생 대견한 자녀 때문에 흐뭇한 하루. **56년생** 추진 중인 일은 암초 만난다. **68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오는 격. **80년생** 생각 많으면 때를 놓친다.



45년생 욕심부리면 고민 늘어난다. **57년생** 계획 어긋나니 대비할 것. **69년생** 어려우나 도우미가 나타나 사기 오른다. **81년생** 갈수록 좋아지니 조금만 참아라.



46년생 시비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8년생** 어려움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70년생** 목마른 대지에 소나기 내리는 격. **82년생** 친구 때문에 입장 곤란해진다.



47년생 충고 받아들이면 복이 들어온다. **59년생** 남의 일에는 신경 꺼라. **71년생** 고집부리면 동료와 불화 반복된다. **83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최경주 뒷심 괴력 최나연 뒷심 부족

경주, PGA 파머스 최종일 6언더 2위 '부활'…나연, LPGA 개막전 3위로 밀려



한국 골프계를 대표하는 남녀 선수가 다 잡은 우승컵을 눈앞에서 아쉽게 놓쳤다.

'탱크' 최경주(44·SK텔레콤)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9승 달성에 실패했다. 27일 미국 샌디에이고 라호야의 토리 파인스 골프장 남코스에서 끝난 2013~2014시즌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적어내며 선두에 1타 차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2개에 버디 8개를 몰아치며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스콧 스털링스(미국)가 18번홀(파 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다. 그레이엄 델라에트(캐나다), 제이슨 데이·마크 레시먼(이상 호주), 팻 페레즈(미국)가 최경주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2011년 5월 열린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이후 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지 못했지만 다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준우승도 2011년 7월 AT&T 내셔널 대회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톱 5에 입상하기는 공동 5위를 차지한 2012년 1월 현대 토너먼트 챔피언십 이후 2년 만이다.



최경주가 27일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대회 마지막 라운드 17번홀 그린 밖 러프에서 자신이 쳐 올린 공을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나연(27·SK텔레콤·작은 사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4년 시즌 개막전인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7일 열린 4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출발했지만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76타로 경기를 끝냈다.

최나연보다 3타 뒤진 공동 3위로 출발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4라운드에서 무려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합계 19언더파 273타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11월 타이틀홀더스 대회 이후 1년2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최나연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퍼트가 번번이 빗나가며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프트뱅크 이대호 출국…"첫 우승 앞으로"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가 생애 첫 우승을 목표로 29일 출국한다.

29일 후쿠오카에서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이대호는 다음달 1일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2001년 데뷔 후 롯데 자이언츠와 오릭스버펄로스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이대호는 올 시즌 소프트뱅크에서 생애 첫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이대호는 국내에서 타격 7관왕을 달성했고 일본에서도 2년 연속 24홈런, 91타점을 올릴 정도로 개인 기록은 출중했다. 소프트뱅크는 통산 17차례 리그 우승, 6차례 일본시리즈 우승을 일군 강팀으로 이대호의 첫 우승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총액 14억5000만 엔(약 153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에 계약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히어로즈는 시련 먹고 자란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서울 히어로즈가 소송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재미 사업가 홍성은씨는 지난 2008년 자금난에 빠진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게 200만 달러를 건넸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대한상사판정부는 투자금이라며 주식 40%를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는 단순한 차입금이라며 주주지위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홍씨는 강제 집행으로 맞소송을 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강제 집행을 하라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히어로즈 측은 항소할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분 40%를 양도하라는 것은 사실상 구단의 대주주가 홍씨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씨가 지분의 매각을 추진한다면 구단의 운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강하다. 야구계는 양측의 분쟁 추이와 결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히어로즈는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독특한 존재다. 기존의 구단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해왔다. 재벌 모그룹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독자생존 방식을 추구해왔다. 사실상 구단의 네이밍라이트를 넥센타이어에 매각해 넥센 히어로즈라는 독특한 이름을 얻었다.

창단 당시에는 KBO 입회금(120억원) 납부가 어려웠고 선수들의 원정 숙식비도 결제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히어로즈가 퇴출되거나 매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기를 넘기면서 보란 듯이 구단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구축했다. 때문에 소송과 상관없이 히어로즈의 힘찬 행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OSEN 야구전문기자

日 언론 오승환 타격실력 관심

일본 프로야구 데뷔를 앞둔 오승환의 타격 능력에 대해 일본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7일 "지명타자제도가 있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뛴 오승환은 10년 이상 타격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일본에 온 오승환은 만약을 대비해 타격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승환의 소속팀 한신 타이거스가 속한 센트럴리그에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수가 타석에 서야 한다.

이에 오승환은 "고교 때까지는 1번 타자였고 삼성 라이온즈 투수 중에는 발이 가장 빠른 편이었다"며 타격과 주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한국에서는 타격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팀이 정한 일정에 따라 훈련하겠다"며 "꼭 타석에서 쳐야 한다는 생각은 없기에 편안하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인기자

프로농구 전적 27일

삼성생명	23	5	13	21	**62**
KDB생명	9	18	13	23	**63**